

# 마리킴 개인전

Mari Kim Solo Exhibition

SETI ∞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전시명 : 마리킴 개인전

Mari Kim Solo Exhibition

**SETI ∞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일 시 : 2016년 1월 13일(수)-2월 24일(수) 43일간

장 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및 신관 1층

문 의 : 02-720-1524~6

출품작 : 189점

협 찬 : Peri Pera

보도자료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60113 - 20160224 마리킴展]

## 1. 전시 개요

학교재 갤러리는 2016년 1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본관과 신관 1층에서 한국 대표 팝 아티스트 마리킴 개인전 <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를 개최한다. 회화, 네온, 조각, 영상 등 189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대형 전시로 작가 작품 세계의 총체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번 전시는 마리킴이 2015년 학교재 상하이에서의 개인전을 통해 국제적 성장 가능성을 증명한 후 갖는 첫 전시라 의미가 크다.

마리킴은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몸과 기이할 정도로 커다란 눈을 특징으로 하는 캐릭터 '아이돌(Eyedoll)'의 창조주다. Eyedoll은 커다란 눈동자를 통해 관객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을 마련한다. 그 창 속에는 인간의 욕망, 고정관념, 가상현실 등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주제가 담겨있다.

작가는 분신이라 할 수 있는 Eyedoll의 창세기-현재-미래의 변천사를 통해서 팝아트의 새로운 길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보여준다.

호주 멜버른 RMIT 대학에서 멀티미디어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크리에이티브 미디어로 석사 학위를 받은 마리킴은 2007년부터 활발한 전시를 통해 작품을 선보였고, 2008년에는 <마리킴의 기묘한 만화경, 아이돌>을 출간했다. 2011년 YG 엔터테인먼트의 그룹 2NE1의 앨범 표지와 그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하여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현재 가톨릭 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2. 전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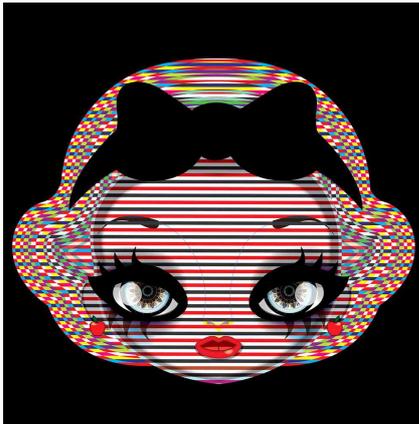
### 1. 창세기(Genesis)



Neo Proto 1, 2012, Acrylic on canvas,  
22.7x15.8cm

이번 전시에서 과거를 의미하는 페인팅 연작들은 페인팅의 유일함을 복제라는 틀 안에 구속하였다. 그의 작품관에서 페인팅은 원시시대 인류처럼 획일화되고 각각의 개성을 구분할 수 없는 외형을 보여준다. 이런 수많은 몰개성이 균집하여 흡사 부족시대처럼 각각이 아니라 무리로서 존재감을 과시한다. 페인팅 작업들 또한 Eyedoll이지만 독립체로서의 의사나 생각, 외형의 화려함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자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대표이미지인 'Neo Proto 1'을 보면 기존 마리킴의 프린트에서 보이는 화려한 색감과 다채로운 문향으로 가득 차있던 눈동자는 3가지 색으로 단순하게 표현되고 있다. 얼굴의 경우도 머리카락과 입술이 동일한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색의 사용을 최소화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표정 또한 무감정으로 표현되었다.

### 2. 현재(Present)



Snow White Extreme, 2013, Ultra chrome ink  
printed under lenticular films, 108x108cm

그녀의 작업 속 Eyedoll은 큰 눈동자로 자신의 개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용모에서 나오는 차별성은 입술이라고 본다. Eyedoll의 입은 과거엔 무감정하게 표현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대로 온 작품 속 입술은 관객들로 하여금 Eyedoll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흡사 나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보인다. 왼편 작품 속 Eyedoll은 프로토 타입에서 보이지 않던 귀걸이와 검은색 큼직한 리본이 중앙에 달린 헤어밴드, 빨간색 루즈를 바른 듯한 입술, 위쪽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도 길고 고운 속눈썹으로 표현되어 있다. 머리부분만 표현된 작품이지만 과거의 페인팅들보다 오히려 더욱 개성을 잘 보여준다. 머리카락과 피부 또한 화려한 색으로 표현되어 회화로 그려진 작품보다 훨씬 화려한 것을 보여준다.

### 3. 미래(Future and Beyond)



Incomplete Solar System, 2015, Ultra Chrome ink  
printed under lenticular lenses, 110x110cm

마리킴 작가는 미래로 간 Eyedoll이 우주로 가면서 점점 구상에서 추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Incomplete Solar System'를 통해 보여준다. 과거의 Eyedoll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분할, 확장, 압축되어 한 장의 이미지에 겹쳐있는 듯 표현한 흡사 육체를 나온 영혼의 모습처럼 보인다. 또한 몸통이 사라지고 머리만 보임으로써 작가가 원하는 생략화, 추상화 과정이 진행 되가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기존의 마리킴이 화려했다면 미래의 마리킴은 어떤 작업을 보여줄지 궁금하게 한다.

### 3. 작가와의 대담

- Woo. 지난 2015년 05월 학교재 상하이에서의 전시 이후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은 어떤 의 미인지 궁금합니다.
- Mari. 이번 학교재 서울에서 갖는 개인전 전시 명은 <SETI> 입니다. 나사(NASA)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 계 지적 생명체 탐색(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프로젝트의 약자입니다.
- Woo. 작가님 작품 속 캐릭터 이름을 ‘Eyedoll’이라고 명명하셨는데, 2008년 출간한 아트북 ‘Eyedoll’(Art Fever, 2008) 에서 대표 용어로 사용하시면서 시작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Eyedoll’에서 ‘Eye’가 여 성의 눈, 그리고 ‘doll’이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읽었습니다.
- Mari. ‘doll’은 사실 여자들의 인형 중 대표적인 바비인형을 doll로 표현했습니다. 작품의 동일한 Eyedoll이 계속 변화하면서 배경 혹은 신체 이미지들이 복제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존재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 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Woo. 이번 <SETI> 展에서의 Eyedoll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Mari. <SETI>는 창세기(Genesis)·현재(Present)·미래(Future and Beyond)라는 총 3개 시리즈로 구성했 습니다. 그중 Genesis와 Future and Beyond는 지금껏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 Woo. 세 부분으로 나눈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Genesis’는 기존 작가님의 Eyedoll에 대한 이야기입 니까?
- Mari. 먼저 Genesis는 제 작품의 과거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종족에 대한, 즉 지구에 사는 인류 혹은 미술사에서 ‘과거’를 의미합니다.
- Woo. 미술이 지니고 있는 과거는 어떤 것입니까?
- Mari. 저는 매체별로 나눠 보았습니다. 미술의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 페인팅을 선택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회화는 회화로 재생산(reproduction)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회화도 단순히 복 제되어 생산될 뿐 각각의 개성을 지니지는 못합니다.
- Woo. 그렇다면 복제된 회화 속 Eyedoll은 개성이 없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 Mari.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석기에도 인류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눈에는 구석기는 현재처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에 그 당시 인류가 각자 다르 기보다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징을 같은 유니폼이나 스카프를 착용한 외형으 로 표현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회화는 딱 1점,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진과 프린트들은 복제 된 것이기에 유일하지 않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전시에서 회화이지만 이 작품들은 복제이며 동일하기에 개성이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Present(현재)에서 선보이는 프린트 작업들 은 오히려 화려한 외형이나 여러 재료를 가지고 제작되어 자신만의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통 해서 저는 ‘미술에서 말하는 유일함과 복제 같은 개념이 작품의 가치 차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 Woo. 그렇다면 Famous Show 시리즈, Hat 시리즈 혹은 상하이 <Forgotten Promises> 展에서 공개했던 Eyedoll과 작업방식이 회화를 통해 보이는 것보다 더 개성이 강하군요.
- Mari. 그렇습니다. <SETI> 에서는 창세기(Genesis)·현재(Present)·미래(Future and Beyond)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Genesis에서는 Eyedoll이 탄생합니다. Present는 Princess 시리즈, Neon 시리 즈 등 마리킴을 생각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존의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Genesis는 몰개성 한 Eyedoll들이 개성을 가지면서 복제된다는 점이 두 시리즈의 차이점입니다. Future and Beyond는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를 지닌 수많은 Eyedoll들이 생겨나면서 개성과 개성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전 쟁의 폐해와 잔여물들이 존재하는 지구라는 행성에 더는 생존이 불가능해진 Eyedoll이 광활한 우주 의 세계로 떠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Eyedoll은 추상적으로 변해갑니다.
- Woo. Genesis는 회화로 복사되며, Present는 제각각 다른 형태의 외형과 기법들로 개성이 추가되고 현대

를 표현하는 방식인 프린트를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Neon 시리즈에 대해서 더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온(neon)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던 작가들과 작가님의 작업이 어떻게 다르고, 기존의 작업 방식인 렌티큘라(lenticular)와 다르게 네온 작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Mari. 동시대 청년 작가이며 회화가 아닌 프린트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미술은 회화에서 미디어 작업으로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네온으로 작업하는 많은 작가가 있지만, 회화와 네온을 접목하는 작가는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크릴과 유화 작품 위에 네온을 합치려면 구멍을 뚫고 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작품에 손상되지 않고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작업은 프린트이기 때문에 회화보다 구멍을 뚫고 선을 연결하는 것이 용이하여 이러한 장점들을 강조해 이미지와 네온을 함께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온작업을 하는 이유는 저는 현대미술에서 좋고 아름답고 기발한 재료를 저의 미술로 다 표현 및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네온도 그 중 하나입니다.

Woo. 네온(neon)과 렌티큘라(lenticular)의 두 작업방법을 합친 작가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보입니다.

Mari. 네. 현대미술에서 새로운 창조는 없습니다. 기존의 존재하는 것을 작가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대미술의 새로운 작업이며, 과학자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홀로그램 혹은 VR 과같은 새로운 방법을 미술에 접목하는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싶습니다. 요즘 로봇 제작에 대해 생각하면서 UCLA 로봇 분야 교수님이신 테니스 홍 박사님께 Eyedoll 로봇 제작을 제안 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과학과 예술이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에 서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Woo. 그러면 다시 Future and Beyond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구를 떠나서 Eyedoll이 추상적으로 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Mari. Future and Beyond로 나아갈수록 Eyedoll의 위치는 이제 지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기에 상상만 할 뿐입니다. 결국, Present 속 이미지들은 추상적으로 변해갑니다.

Woo. 다른 작품들은 상반신 혹은 전신이 다 보이는 작품들이 많은데 Future and Beyond로 오면 얼굴 부분만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Mari. 저는 우주의 행성을 상상하면 동그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를 사람으로 비유하여 신체에서 가장 동그란 부분인 얼굴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얼굴만 보이고 전신은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Woo. Genesis 작품에서 형이상학적인 글자 형태가 눈에 띄니다. Future and Beyond에서는 글자나 형태로 표현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Mari. 있습니다. 작품 'Hal 9000'을 보면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숫자들이 쏟아지듯이 형이상학적인 글자들이 영상 작품 속에서도 흘러내립니다. 그 글자들은 외계 언어여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고대 벽화에 적혀있던 문자나 문양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 벽화'라는 소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가 연결됩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지구를 떠나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Woo. 작품들의 크기뿐만 아니라 캔버스 형태도 다양합니다.

Mari. 1~120호 다양한 크기와 형태, 일반적인 사각형부터 삼각형, 육각형 등 여러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전시 구성은 조그마한 것에서 점점 커지는 형태로 배치하여 전체를 하나의 설치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Woo. 언제부터 이런 전시를 생각하셨습니까?

Mari. 사실 오래전부터 회화를 어떻게 제 작품 안에 흡수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기존 프린트 작품이 대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작업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주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이러한 시도들이 '어떻게 작업을 회화와 연결할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Woo. 회화, 렌티큘라(lenticular), 조각, 철 구조물, 영상 등 폭넓은 작업형태가 보입니다. 무한한 복제를 보여주는, 작품 수에서 대중들을 압도하는 전시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Mari. 감사합니다.

## 4. 전시 서문

### SETI :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이명현 (과학저술가 / 천문학자)

지구로부터 1,400광년 떨어져 있는 케플러-452b라는 외계행성이 있다. 백조자리에 속한 태양과 비슷한 케플러-452라는 별 주위를 385일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지구보다 조금 큰 행성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행성 중에서 지구와 환경 조건이 아주 비슷하기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천체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관측 결과는 우리 은하 안에만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50억-500억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지구를 닮은 행성 중에 일부에만 생명이 존재하고 또 그 중 일부에만 지구인 같은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여전히 상당히 클 것이다. 외계지적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생각보다 흔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쩌면 지구와 유사한 케플러-452b에 외계지적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 문득 그곳에서 아티스트 마리킴을 만나는 상상을 해봤다. 천문학자인 내 눈은 늘 외계지적생명체가 살고 있을 우주 속 어느 곳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마리킴이 만들어낸 슬한 아이돌(Eyedoll)의 커다란 눈도 그런 세상을 상상하며 반짝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케플러-452b는 그런 두 사람이 조우하기에 알맞은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 개의 눈을 아니 마리킴이 만들어낸 그 많은 눈을 모두 크게 뜨고 우리들의 고향 지구가 속한 태양을 아련하게 응시하는 그런 상상을 해봤다. 마리킴의 전시회 <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가 어쩌면 우리들의 먼 훗날의 조우를 향한 긴 여행의 첫걸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혼자 낯선 곳을 여행할 기회가 생겼을 때 나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저 발걸음이 향하는 대로 걷는 것을 좋아한다.” 마리킴 자신의 고백처럼 그녀는 낯선 것, 혼자인 것, 정해지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예술적 여행을 계속해 오고 있는 듯하다. 마리킴은 입체 조형물을 창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작업에서 2차원의 틀을 고집한다. 공간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녀의 2차원 인물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차원적인 그림 속에 표현된 인물들은 우리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느끼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그 큰 눈망울로 ‘내게 말을 해봐’ 하면서 도발하기도 한다. 그래서 2차원 속 인물들이 3차원 세상의 우리 보다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곤 한다. 역사 속 인물들을 2차원 평면 속으로 데리고 와서 시간의 입체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2차원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마리킴의 마력 덕분이다. 마리킴의 여행은 그녀의 머릿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돌 그림의 2차원 평면을 거쳐서 우리들의 머릿속으로 입체화되어 들어오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생각한 개념이 복제와 변형이라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들의 뇌 속에서 재개념화 된다는 것이다. 마리킴의 여행은 하나가 여럿이 되는 변화의 예술이다.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킴을 표현이 화려한 유능한 팝아티스트로 부르지만 나는 그녀야말로 개념이 작품을 지배하는 작가라고 칭하고 싶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많은 눈을 가지면 더 많은 창이 생기는 걸까?” 마리킴 예술의 원형은 아이들의 눈이다. 장식이나 색깔에는 수많은 변형이 이루어지지만 커다란 눈이 갖고 있는 정서에는 변함없는, 마치 하나밖에 없는 맹세 같은 순결함이 있다. 나는 늘 작가가 그런 순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했었다. 눈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창이기도 하고 온갖 욕정의 정보가 뇌로 전달되는 입력 통로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같은 것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튕겨져 나오는 화이트홀 같은 곳이기도 하다. 나가기만 해야 하는 곳과 들어오기만 해야 하는 곳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낯선 곳이 눈이다. 마리킴은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다. 진짜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의 눈들을 통해서 표출되는 정서는 다양하다. 가련한가 하면 당당하고 다정한가 하면 가학적이다. 눈 속에 모순을 몽땅 담았다. 그래서 늘 낯설고 설렌다. 그 눈 그 눈망울이. <SETI>전은 원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낯선 존재들을 창조하는 마리킴의 관념을 실체로 구현하는 구도의 과정과도 같은 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눈이 하나의 눈의 단순한 파생이 아니라 각자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성인식과도

같은 전시회인 것 같다. 어쩌면 마리킴은 눈의 원형의 순결함마저도 더 낯설고 더 외로운 예술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포기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그녀가 만들어 낸 모든 눈들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다.

“멀지 않은 미래, 내 자신을 복제할 수 있다며 다양한 버전의 나를 만들고 싶다.” 어쩌면 마리킴은 이미 자신이 내뱉은 이 말을 실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SETI>전의 키워드를 하나만 들라고 한다면 나는 원형이나 우주나 외계인이나 이런 단어보다는 ‘복제’를 선택하겠다. 마리킴 예술의 원형이 되는 아이돌의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그림들은 작가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복제 과정에서 하나하나 나름대로의 의미를 창출하면서 생명력을 얻어가고 있었다. 아마도 어느 날부터인가 그 복제의 과정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마리킴을 넘어섰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작품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자신이 창조했지만 자신을 벗어난 창작물에 대한 낯설음을 작가는 다시 직면해야 했을 것이다. 외로웠을 것이다.

<SETI>전은 마리킴에게는 숙명적인 과정일지도 모른다. 원형으로부터의 복제가 그녀의 예술의 과정의 본질이라면 그 결과는 복제된 ‘나 아닌 나’로 태어난 슬한 눈일 것이다. 과학자들은 생명이 지구에서 독립적으로 생겼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유기물질의 형태든 그 보다 더 복잡한 형태든 지구 밖으로부터 들어온 물질들로부터 생명이 태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물질들은 사실 모두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태양계만 생각해 보더라도 생명의 재료가 태양계를 형성한 성운 속에 이미 존재했다가 지구에도 화성에도 유입이 되었을 것이다. 성운 속에 존재하는 물질은 또 그 이전에 일생을 살았던 별들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 물질들의 기원은 빅뱅 직후 우주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물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적인 기원은 우주 공간이고 별의 내부인 셈이다. 우주 속에 흩어진 물질들은 그 기원을 공유하고 있다. 어느 별 옆 행성에 외계지적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원형과 복제와 그로부터 생산된 다양한 눈을 예술적 화두로 삼고 있는 마리킴에게 근원에 대한 탐구는 필연적인 과정일 것이다. <SETI>전은 그런 그녀가 원형 이전의 기원에 대해 던지는 질문이고 복제된 자신들에게 던지는 현재의 실존적 질문인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다시 여행이다. 익숙하지만 그래도 낯선 어느 행성의 외계지적생명체를 찾아나서는 여정이다. 천문학자들은 외계지적생명체를 찾는 작업을 또 다른 ‘나’를 찾는 작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같은 원형인 물질에서 파생된 또 다른 우리들의 자화상이 외계지적생명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리킴은 태생적으로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녀의 마지막 질문은 ‘그들은 어디에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SETI>전은 작가가 일생에서 한번은 만나야만 하고 극복해야만 하는 숙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그녀의 여행의 어느 순간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 멋진 여행이 되길 바란다. 케플러-452b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 보면서 나는 나의 여행을 위해 떠난다. 그런데 벌써 그림다.

## 5. 작가 약력

### 마리킵

2006 로얄멜버른 공과대학 (RMIT)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석사

현재 카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겸임교수  
서울 거주 및 작업

### 개인전

- 2015 잊혀진 약속들, 학교재갤러리, 상하이  
로맨스 인 더 에이지 오브 카오스, JR갤러리, 베를린
- 2014 싱크러니시티, 샤인 아티스트, 런던  
페이머스 쇼, JR갤러리, 베를린  
페이머스 아이돌스, AP 컨템포러리, 홍콩
- 2013 페이머스 쇼 인 홍콩, 하버시티 엘씨엑스, 홍콩
- 2012 페이머스 쇼 인 부산, 가나아트갤러리, 부산  
페이머스 쇼, 가나아트갤러리, 서울  
케이 팝 아트, 오페라갤러리,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 2011 차일드 플레이, TV12 갤러리, 서울
- 2009 아이돌 쇼, 갤러리 엘비스, 서울
- 2008 슈거 캔디 쇼, 쌈지 일러팝, 서울

### 단체전

- 2015 B:W, JR갤러리, 베를린  
어둠 컨템포러리 콜렉션, 샤인 아티스트, 런던
- 2014 팝 앤 파티, 롯데갤러리 안양점, 안양  
판타스마고리아,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 2013 K-Surrogates, 아트 아말가메이트, 뉴욕  
코리안 컬렉티브, 샤인 아티스트; 알베마르갤러리, 런던  
서브컬처 익스프레스 - 여가의 새발견, 문화역서울 284, 서울  
가나아트 개관 30주년 기념전, 가나아트갤러리, 서울
- 2012 페스티벌 오!광주-미디어아트 2012, 5·18민주광장, 광주  
만화로 보는 세상, 소마미술관, 서울  
마이 퍼니 발렌타인, 김리아갤러리, 서울  
드래곤 인 유어 룸, 아뜰리에 아키, 서울
- 2011 블랙 앤 화이트, 오페라갤러리, 서울  
캐릭터로 이야기하기, 장흥아트파크, 양주  
편 앤 토이, 가나아트갤러리, 부산

- 제5회 클리오 코스메틱 아트 - 클리오 박스,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상상바이러스,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판타스틱 플레이스, 표갤러리 사우스, 서울
- 2010 아이로봇,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팝 파티, 장흥아트파크, 양주  
2010 별 컬렉션 나우, 신사아트타워, 서울  
DECEM-Satisfaction, 갤러리이배, 부산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III - 팝 아트,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한국의 역량있는 작가50인의 현대미술 탐험전,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  
신나는 미술관: 와우~! 퍼니 팝,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뉴 포커스 - 한국현대미술, 아트 시즌스, 싱가포르
- 2009 강남 미디어폴 프로젝트: 헬로! 미디어 폴 아카이브, 갤러리 엘비스, 서울  
헬로우 퍼니즘, 신한갤러리, 서울  
아름다움이 세상을 치료한다, 갤러리 쌈지, 서울  
'뻔'한 전시, 김리아갤러리, 서울  
09 KIST 가족문화마당 IV, 科學+美術 미술이 과학을 만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화공간, 서울  
만화\_한국만화100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08 아트 돌, 갤러리 서호, 서울

## 작품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 프로젝트

- 2013 더 호러쇼,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이천  
2011 2NE1 뮤직비디오 'Hate You' 감독  
2NE1 미니앨범 아트디렉터  
2007 단편영화'목구멍 속 금붕어'감독, Mains d'Oeuvres, 생투앵, 프랑스  
2006 픽토플라즈마 아트페스티벌, 베를린

## 출판물

- 2008 'EYEDOLL 마리킴의 기묘한 만화경' 출간, 리더스킴 출판사, 파주